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5, No. 137, pp.39-78  
<https://doi.org/10.29212/mh.2025..137.3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기획 2

## 1945년 중국지역 일본군의 항복과 무장해제를 둘러싼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의 각축

정형아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목 차
- I. 들어가며
  - II. 중일전쟁 후반 국공 관계
  - III. 수항과 일본군 무장해제에 대한 구상들
  - IV. 수항과 무장해제를 둘러싼 국·공의 각축
  - V. 나오며

**초 록** 1945년 일본이 항복한 후 중국지역에서 진행된 일본군 무장해제는 단순한 군사적 절차가 아니라, 전후 중국의 정치 질서를 결정지은 국공(國共) 경쟁의 서막이었다.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정부는 연합국의 공식 승전국이라는 정통성을 내세워 일본군의 항복과 무장해제를 주도하려고 하였고, 중국공산당은 해방구 확대를 통해 ‘항전의 진정한 주체’임을 강조하며 무장해제 권한을 요구하였다. 이처럼 양측은 일본의 패전을 전환점으로 삼아 항일전쟁의 협력 관계에서 곧바로 내전이라는 대립 구도로 전환하였다.

특히 소련의 대일전 참전, 동북지역을 점령, 그리고 국민정부와의 「중소 우호동맹조약」 체결은 국공의 세력 균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소련은 공식적으로는 국민정부를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동북지역에 남아

있던 일본군 무기와 시설을 공산군에게 양도함으로써 국공 간 대립을 격화시켰다. 결과적으로 일본군의 항복과 무장해제는 단순한 전후 군사행정이 아니라, 중국의 정치적 재편과 냉전 초기 동아시아 질서형성의 기점이 되었다.

이 연구는 1945년 중국 본토의 일본군 무장해제를 둘러싼 국공 양당의 대응과 각축을 통해, 전후 중국 내전의 기원이 이미 항복 과정에서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며, 더 나아가 '항일전쟁의 종결'이 곧 '내전의 시작'으로 이어진 중국 현대사의 특수한 연속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Key Word) : 1945, 일본의 항복, 일본군 무장해제, 국민당, 중국공산당

원고투고일 : 2025. 10. 12. 심사수정일 : 2025. 11. 28. 게재확정일 : 2025. 12. 15.

## I. 들어가며

일본의 항복 이후, 우리는 잃었던 주권과 강토를 되찾은 광복절로 8월 15일을, 중국은 항전승리를 자축하는 전승절로 9월 3일을 기념하고 있다. 2025년은 중국의 항전승리 80주년이 되는 해이다. 중국 정부는 2015년의 70주년과 마찬가지로 항전의 역사를 담은 문화 행사와 학술회의, 그리고 열병식 등을 성대하게 거행하며 항전승리를 기념하였다. 이번 80주년 행사에서 그들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가 있었기에 항일전쟁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1949년 10월 이전까지 중국 본토를 대표하는 정권은 장제스(蔣介石)가 이끄는 국민당 정부였으며, 그들이 항일전쟁과 전시 국제협력을 모두 주도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1937년 발발한 중일전쟁은 국민당과 공산당의 분열과 갈등을 잠재우고 제2차 국공합작이라는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었다. 1945년 중일전쟁이 끝나자 중국에서는 국공회담으로 전후 정국의 안정을 모색하였으나 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는 국지적으로 무력충돌이 일어났고, 종전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는 전면적인 내전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관해서 이미 많은 연구자들은 장제스가 왜 타이완으로 패퇴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의문에서 시작하여 전투상황, 미국과 소련의 개입과 영향까지 다룬 적지 않은 성과를 내놓았다.<sup>1)</sup> 물론 기존 성과들 가운데 일본의

1) 전후 국공문제를 다룬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기세찬, 「중국 공산당의 대국민당 전략과 실천」, 『세계역사와 문화연구』제72집(2024.9.); 로이드 E. 이스트만, 『장개석은 왜 패하였는가?』, 서울: 지식산업사, 1990; 呂迅, 『大棋局中的國共關係』,

항복을 주제로 한 연구들도 적지 않으나,<sup>2)</sup> 수항(受降)을 둘러싼 국민당과 공산당의 상황과 관계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한 경향이 있다.

제1차 국공내전은 중일전쟁의 발발과 더불어 일단락되었으나, 갈등의 요인은 여전히 내재하여 중일전쟁이 진행 중이던 1941년 환남(皖南)사변으로 표출되었다. 이후 국민정부는 중국 공산당의 후방활동과 변구확대를 끊임없이 경계하였다. 전쟁 후반기에 이르러 미국은 중국이 대일전쟁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면서 국공문제에 개입하였고, 양측의 연합을 압박하였다. 그러나 환남사변 이후 국공 간의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고, 전쟁 말기로 갈수록 갈등은 노골적으로 표출되었다.<sup>3)</sup>

1945년 8월 중순, 전쟁종결이 기정사실화되는 시점에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은 일본군의 항복 수락과 무장해제를 둘러싸고 상이한 전략적 이해를 지니고 있었다. 일본군의 항복 수락과 무장해제 과정은 잠재된 국공 갈등이 드러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무장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5; 汪朝光, 『1945-1949: 國共政爭與中國命運』, 香港: 香港中和出版有限公司, 2011; 林桶法, 『戰後中國的變局—以國民黨為中心的探討』, 臺北: 商務印書館, 2003; 劉維開, 「從南京到臺北」, 『晉陽學刊』2012年第2期; 林桶法等, 『國共內戰』, 南京: 南京大學出版社, 2015; Odd Arne Westad, *Cold War and Revolution: Soviet-American Rivalry and the Origins of the Chinese Civil War*,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Dieter Heinzig, *The Soviet Union and Communist China 1945-1950*, N.Y.: Armonk, 2004 등이 있다.

- 2) 백봉중, 「日本の 항복과 美·蘇軍의 韓半島 進駐」, 『통일논총』제2권(1989); 황선익, 「중국관내지역 일본군 무장해제와 한인 병사」, 『한국학논총』제44집(2015); 최영호, 「일본의 항복과 한반도 분단」, 『역사문화연구』제62집(2017); 哈曉斯, 「1945年安慶受降記」, 『江淮文史』2020年第2期; 吳和平·吳建宏, 「中國戰區對日受降的三個環節」, 『湖南工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2018年第23卷3期; 杜春和, 「中國戰區接受日軍投降始末」, 『文史精華』1995年第8期; 周錦濤·王沫涵, 「中國戰區對日受降研究述評」, 『毛澤東論壇』2016年第1期.
- 3) 黎博呀, 「失敗的談判 成功的博弈—林伯渠與1944-1945年國共談判」, 『高校馬克思主義理論研究』2020年6(04)卷; 魏然·鹿兮, 「毛澤東堅持以“八路軍”名號抗戰的大智慧」, 『黨史博覽』2020年第10期.

해제를 둘러싼 표면적인 각축의 시간은 의외로 짧았다는 점, 그리고 그 상황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그동안 해당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진전되지 못한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필자는 수항(受降)과 무장해제라고 하는 주제가 전후 질서의 변화 속에서 갖는 의미 검토를 제안하며 특히 전후 중국의 상황과 국공관계의 변화에 대한 출발점으로 1945년 8월 일본의 항복과 무장해제를 상정한다.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가 제2차 국공내전이 1946년 6월 26일 전면전으로 확대되었다고 함으로써 일반적으로 국공내전의 발발 시점을 1946년 6월 26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중일전쟁 기간 동안 내재되어 있던 국공갈등이 표면화된 것은 수항과 무장해제 때부터였으므로, 국공내전의 서막으로서 수항과 무장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입장이다.

본 연구를 위해 필자는 기존 연구에서도 사용되었던 1946년 中國陸軍總司令部가 편찬한 수항관련 자료집인『中國戰區中國陸軍總司令部處理日本投降文件彙編』(上)·(下)과 일본방위연구소가 발간한 『昭和20年の支那派遣軍<2>：終戦まで』와 『支那派遣軍終戦及び復員資料 上奏(終戦後に於ける支那派遣軍の一般狀況に就て)』를 중심으로 수항 전후 상황을 구성하고, 타이완 국사관 소장의 장제스와 천칭(陳誠)당안, 국민당과 장제스의 자료를 모아 엮은 자료집인『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三·五·七編과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 그리고 중국 공산당 문헌연구실 등에서 편찬한 자료집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다만, 모든 수항구(受降區)의 상황을 포괄하기에는 자료와 지면의 한계가 있으며, 특히 군사사적인 검토를 위해서는 중국공산당과 각 지역의 사례에 대한 자료의 추가적인 발굴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 정치 상황

을 중심으로 수항에 대한 국공 양측의 대응을 살펴보고 이것이 전후 중국과 동아시아 정세에 미친 영향을 추적하는 초보적인 시도를 밝힌다.

## II. 중일전쟁 후반 국공 관계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제2차 국공합작이 실현되었고, 공산군은 제18집단군(이하 팔로군)과 신편 제4군(이하 신사군)라는 이름으로 국민정부의 군대에 편제되었다. 그러나 제1차 국공합작 때와는 달리 두 개 정당의 대등한 합작의 형태를 취한 제2차 국공합작은 공산군에게 독자적인 지휘권과 작전을 허용하였다. 국공합작이 성립된 초기인 1937년 9월, 팔로군이 일본군 제5사단 수송부대 500여 명을 기습한 평싱관(平型關)전투는 공산군이 중일전쟁에서 거둔 최초의 전과였다.<sup>4)</sup> 그러나 그 후 공산군은 주로 적의 후방에서 항일유격활동을 전개하였다. 1940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백단대전 이후에는 공산군이 일본군과 주도적으로 치른 큰 전쟁은 없었다.

반면 1939년 8월부터 1940년 2월까지 화북 지역에서는 국민정부군과 중국공산군이 9차례나 충돌했고, 그 사이에 공산당의 병력도 약 40만 명으로 성장하였다.<sup>5)</sup> 공산당 세력의 성장을 우려했던 장제스는 1940년 10월 신사군과 팔로군에게 1개월 안에 황허(黃

4) 楊奎松, 「八路軍平型關戰鬥再研究」, 『“1930年代的中國”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下卷)」, 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研究所(2005); 袁旭, 「平型關戰鬥與百團大戰若幹史實的考訂」, 『抗日戰爭研究』, 1991년제2期 등 참조.

5) 정형아, 『동아시아 전후처리와 중·소갈등(1941~195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47쪽.

河)이북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으나,<sup>6)</sup> 공산군은 이를 거부하였다. 그 결과, 1941년 1월 5일 국공 충돌이 발생하였다. 이것이 환남(皖南)사변, 일명 신사군사건이었다.

환남사변 이후 저우언라이(周恩來)는 충칭(重慶)에서 외신 기자들과 각국 외교관을 상대로, 환남사변이 장제스의 반공 탄압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선전하는데 주력하였다. 이에 비해 국민정부는 대외적으로 중국이 항일(抗日)보다 반공(反共)에 더 치중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하였다. 당시 유럽 정세가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었던 만큼, 국민정부와 협력관계에 있던 소련도 중국 내부의 혼란을 원하지 않았다. 1935년 코민테른 서기장으로 선출된 드미트로프(Georgi Dimitrov)는 마오쩌둥에게 “당신들은 (관계의) 파괴를 출발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통일전선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중을 의지해야 하며, 우리 공산당과 군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내전의 확대를 피해야 한다”고 충고하였다.<sup>7)</sup> 따라서 환남사변 이후 국공관계는 냉각되었으나, 중국 공산당은 표면적으로는 국공합작 노선을 유지하는 한편, 후방에서 근거지를 확장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1945년 8월 종전을 앞두고, 중국 공산당 측의 정규군은 93만 명, 민병은 220만 명으로 성장하였으며, 대외선전 활동 또한 점차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였다.<sup>8)</sup>

반면, 국민정부는 전쟁 후반기로 갈수록 대일항전의 형편없는 전과로 인해 동맹들의 신뢰를 잃어갔다.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의

6) 「何總長白副總長致十八集團軍總司令朱德副總司令彭德懷轉新四軍軍長葉挺飭停止不法行動代電」(1940.10.19.), 秦孝儀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五編 中共活動真相(二), 臺北: 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黨史委員會, 1981, 505쪽.

7) 季米特洛夫, 『季米特洛夫日記選編』,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2, 87-88쪽.

8) 徐京城, 「對中共武裝解決投降日偽軍作戰之管見」, 『抗日戰爭研究』1995年第3期, 54쪽.

경제고문 커리(Lauchlin B. Currie)는 중국을 방문했을 때, 장제스에게 국공 양측이 갈등 없이 항일전쟁에 매진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sup>9)</sup> 또한, 국민당과 공산당이 서로 협력하게 하기 위해 미국 대통령의 개인 특사 헐리(Patrick J. Hurley)는 충칭과 옌안(延安)을 오가며 중재하였다.

국민정부는 국민당의 영도적 위치가 인정된 상태에서 공산당과 다른 정당에게도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그들이 정부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며, 공산당의 군대를 국민정부의 군대로 흡수하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옌안의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국민당과 공산당, 그리고 모든 항일 정당이 합법적이며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정부를 구성한다는 ‘연합정부론’을 제안하였고, 헐리는 국민정부에게 이를 받아들이라고 압박하였다.<sup>10)</sup> 미국은 단지 중국이 내부적으로 결속하여 항일전쟁에 집중할 수 있기 바랐던 것이다.

마오쩌둥은 1945년 4월 24일 중국 공산당 제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발표한 정치보고서를 통해 ‘연합정부론’을 공론화하였다.<sup>11)</sup> 그러나 이 정치보고서에서 마오쩌둥은 공산당의 군대인 팔로군, 신사군, 그 밖의 인민군대를 확대시키고 적(일본군)이 활동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항일무장조직을 발전시켜야 하며, 국민당에 의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도 하달하였다.<sup>12)</sup> 즉 종전을 앞두고 중국 공산당은 환남사변 이후 유지해오던 통일전선의 형태를 계속 시행하여 임시로 연합정부를 구성하되, 독자

9) 「蔣委員長在重慶接見居裏先生聽其報告來華之原因及傳達羅斯福總統之口信後告以對共黨問題應了解之基本要點及囑其研究解決中國幣制問題之辦法談話記錄」(1941.2.8.), 秦孝儀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三編 戰時外交(一), 臺北: 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黨史委員會, 1981, 542-543쪽.

10) “The Ambassador in China(Hurley) to the Secretary of the State”(Jan. 31, 1945), *FRUS 1945, The Far East, China, vol.7*, p.195.

11) 마오쩌둥, 『모택동선집』3, 서울: 범우사, 2017, 275-347쪽.

12) 마오쩌둥, 『모택동선집』3, 313쪽.

적인 군사역량을 확대하여 최종적으로는 국민당의 ‘일당독재’를 폐지하고 자신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중국 건설을 구상하고 있었다.<sup>13)</sup> 국공 양측은 각각 종전이 임박한 시점에 종전 이후의 주도권을 선점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측의 구상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바로 「포츠담 선언」의 일본에 대한 처리와 소련의 동북출병이었다. 포츠담회담은 원래 유럽 전후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945년 7월 17일부터 8월 1일까지 베를린 교외의 포츠담에서 열렸으며, 이 기간 일본 처리문제를 포함한 미·영·중 3국의 공동선언이 이루어졌다. 당시 소련은 아직 대일 선전포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8월 9일 중국 동북으로 출병하면서 대일선전포고를 하였고, 또한 포츠담의 공동선언국이 되었다. 「포츠담 선언」은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 군국주의 축출, 일본 영토의 한정, 일본군대의 무장해제 및 해체, 전범재판, 연합국의 일본점령 및 관리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sup>14)</sup> 그러나 일본은 1945년 1월 미국의 본토공격에 대비해大本영이 결정했던 「제국육해군 작전계획 대강」에 따라 8월까지 본토에 육군 240만 명, 해군 130만 명을 합한 370만 명의 대군을 편성하여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sup>15)</sup> 독일의 패배로 인해 전황에 커다란 지각변동이 생겼음에도 일본지도부는 「포츠담선언」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sup>16)</sup>

「포츠담선언」이 공개되기 하루 전인 7월 25일, 주중 미국대사 헐리는 장제스에게 「포츠담선언」의 내용을 전달하며 가능하면 빨리 동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장제스는 선언의 서두에 “우리 미국

13) 마오쩌둥, 『모택동선집』3, 314-322쪽.

14) 일본역사연구회, 『태평양전쟁사 2 : 광기와 망상의 폭주』, 서울: 채륜, 2019, 500-502쪽.

15) 후지와라 아키라, 『일본군사사』上, 서울: 제이앤씨, 2013, 337쪽.

16) 일본역사연구회, 『태평양전쟁사 2 : 광기와 망상의 폭주』, 502-504쪽.

대통령, 중국 국민정부 주석, 그리고 영국 총리는 수억 명의 국민을 대표하여”라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요구함으로써 공동선언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sup>17)</sup> 당시 포츠담선언은 일본이 ‘무조건 항복’이라는 요구를 받아들이면 군대는 완전히 무장을 해제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고 산업도 유지하며 새로운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sup>18)</sup> 장제스는 이러한 ‘포츠담선언’에 대해 미국에 답신을 보내어 ‘포츠담선언’의 각항 내용과 일본에 전쟁을 끝낼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미국과 영국의 결정에 동의했으며, 일본 정부의 최종처리 방식은 일본 인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이는 자신이 수년 동안 주장해 조건이라고 하였다.<sup>19)</sup> 장제스의 이러한 대일 입장은 중일전쟁 발발 전부터 그가 줄곧 견지해오던 태도와 맞닿아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양외필선안내(攘外必先安內)’방침을 추진한 장제스의 일본에 대한 태도를 ‘타협적’ 혹은 ‘유화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sup>20)</sup> 사실 장제스는 만주사변 발발 이후 일본의 침략을 국제사

17) 「赫爾利函蔣中正請同意促使日本無條件投降之公告條款」(1945.7.25.), 『蔣中正總統文物: 革命文獻—日本投降』, 典藏號: 002-020300-00027-001.

18) 「赫爾利函蔣中正請同意促使日本無條件投降之公告條款」(1945.7.25.), 『蔣中正總統文物: 革命文獻—日本投降』, 典藏號: 002-020300-00027-001.

19) 秦孝儀主編,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下, 臺北: 中正文化基金會, 1978, 785, 789쪽.

20) Parks M. Coble, *Facing Japan: Chinese Politics and Japanese Imperialism, 1931-1937*,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 Hans van de Ven, *China at War: Triumph and Tragedy in the Emergence of the New Chin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7; 下田 貴美子, 「ソ連の危機. 蔣介石の危機としての1937年ドイツの日中和平調停」, 『アジア太平洋研究科論集』卷36(2018.9.); 肖凱豐, 「스チュアートによる日中和平工作の再考(1937~1941): 教育家・民間外交家・宣教師としての多重役割」, 『國際公共政策研究』2025, 29(2); 黃道炫, 「蔣介石“攘外必先安內”方針研究」, 『抗日戰爭研究』2000年第2期; 潘星, 「妥協與抗爭: 蔣介石與濟南事件前後的對日決策」, 『抗日戰爭研究』2014年第2期; 楊天石, 『找尋真實的蔣介石』, 重慶: 重慶出版社, 2018; 黃自進, 「從《塘沽協定》看中, 日兩國在華北的攻防」,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集刊』第123期(2024.3.) 등 참조.

회의 힘을 빌려 해결하려고 하였고,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는 대군을 동원한 토벌작전을 견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중국 공산당이 일으킨 내부 혼란을 틈타 일본이 동북지역을 침략한 것이고, 또한 중국 공산당으로 인해 일본의 침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기록한 바 있다.<sup>21)</sup> 이러한 대일 유화와 반공에 대한 장제스의 태도는 전쟁 종결이 임박한 시점에도 변함이 없었다. 장제스의 대일 태도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덕보원(以德報怨, 원한을 덕으로 갚다)’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였다. 황쯔진은 장제스가 일본과 연계한 반공을 구상하였다고 했고,<sup>22)</sup> 이에치카 료코는 장제스가 가졌던 일본과 연대한 ‘반공항소(反共抗蘇)’의 구상이, 전후 미국, 영국, 소련의 아시아정책을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덕보원’으로 표출되었다고 주장하였다.<sup>23)</sup> 결국 장제스의 ‘이덕보원’도 그 기저에는 ‘반공’이라는 요소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소련의 대일선전포고와 동북출병도 국공관계의 중요한 변수였다. 장제스는 중일전쟁이 발발한 초기부터 소련의 참전을 제안한 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이 아시아의 전쟁에 개입하기 전 상황이었다.<sup>24)</sup> 반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전쟁이 발발한 후 소련에 대일전 참전을 요구해 왔으며, 유럽 전선에서 연합군의 승세가 보이기 시작하자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확정지으려 했다.<sup>25)</sup> 그

21) 秦孝儀,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二, 臺北: 中正文化基金會, 1978, 128쪽; 정형아, 『중일전쟁 시기 중·소관계와 군사협력』,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4, 66-67쪽.

22) 黃自進, 「抗戰結束前後蔣介石的對日態度: ‘以德報怨’真相的探討」,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集刊』第45期(2004.9.), 172-183쪽

23) 家近亮子, 『蔣介石の外交戰略と日中戦争』, 岩波書店, 2012, 270-273, 277-278쪽

24) 정형아, 『중일전쟁 시기 중·소관계와 군사협력』, 95-105쪽.

25) 王永祥, 『雅爾達密約與中蘇日關係』, 臺北: 東大出版社, 2003, 33쪽; 정형아, 『동아시아 전후처리와 중·소갈등(1941~1952)』, 75쪽.

리고 1945년 알타회담에서 미국과 소련은 소련이 원하는 참전조건을 구체화하였다. 참전의 주요 대가는 소련이 적국인 일본이 아닌 연합국의 일원인 중국의 영토 내에서 군사기지, 상업항구, 철도 이권 등을 취하겠다는 것이었다.

중국과 소련이 모스크바에서 협상을 진행 중이던 8월 6일과 9일 원폭투하 소식이 알려지자 소련은 중국 동북으로 즉시 출병하였다. 그리고 일본 정부도 8월 10일 「포츠담선언」의 내용을 기초로 항복문제를 논의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전쟁 승리의 날짜가 크게 앞당겨지자, 중국 국민정부와 공산당은 모두 전후 중국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였다.

### Ⅲ. 수항(受降)과 일본군 무장해제에 대한 구상들

장제스와 국민정부는 연합군의 중국 전구 총사령관이자 중국의 항전 통수권자로서 당연히 자신들이 수항과 무장해제를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일본의 항복이 임박하자 장제스는 대외적으로는 자신이 준비하고 있던 정예부대인 청년군 3개 사단을 일본 본토점령에 투입하여 전후 동아시아에서의 지위와 질서 유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결심하였다.<sup>26)</sup> 그러려면 무엇보다 중국 국내에서부터 항전승리의 결실을 주도하고 전후 질서를 안정되게 끌어갈 필요가 있었다. 장제스의 참모들은 수항과 무장해제, 적산처리, 포로송환 등 여러 항목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8월 11일부터 중국 국방최고위원회와 중앙상무위원회는 긴급합동회의를 열어 수항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때 논의된 주요 사안은

26) 秦孝儀主編,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下, 771쪽.

일본 본토 공략보다 우선 중국 영토 내의 처리문제가 중심이 되었고, 중국 공산당에 관한 것도 포함되었다.

장제스의 참모 중 1944년 스위스에 무관으로 파견된 펑커딩(彭克定)은 독일의 항복에 대한 연합국의 처리를 참조하자고 건의했다. 그는 일본군과 접촉할 수 있는 중국 측 인물을 동북과 한반도를 포함한 각지에 보내어 일본군 고위층과 협상하고 우대조건을 제시하여 정면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그들을 자극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가능한 한 일본군이 스스로 무기를 파괴하지 않게 하고 또한 정면충돌 없이 그들의 거점을 점령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27)</sup> 승전을 앞둔 상황에서 현지부대 간에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항복을 받고 일본의 우수한 군수 물자를 손상 없이 전리품으로 획득하는 것이 전후 질서회복과 국민정부군의 전력보충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공산당에 대해서도 경계할 여러 요인이 제기되었다. 펑커딩은 유럽에서 수집한 각국의 정보를 장제스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있었다. 각국 공산당의 동정에 관한 보고 중, 일본의 동향에 대해서 펑커딩은 일본 정부 요인들이 이미 일본 공산당에게 항복하였으며, 일본 공산당은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국의 공산당과 연계하여 모스크바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sup>28)</sup> 여기에 더하여 1945년 6월 중국 내부에서는 공산군과 국민정부군 사이에 국지적인 충돌이 이미 발생하고 있었으며,<sup>29)</sup> 미국 정부는 장제스 정부에 알타에서 결정한 소련의 참전조건을

27) 「彭克定電蔣中正」(1945.8.11.), 『蔣中正總統文物：勝利受降(四)』, 典藏號：002-090105-00015-149.

28) 「彭克定電蔣中正」(1945.6.20.), 『蔣中正總統文物：勝利受降(四)』, 典藏號：002-090105-00015-140.

29) 秦孝儀主編,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下, 718쪽.

전달하며 모스크바로 가서 소련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라고 압박하고 있었다.<sup>30)</sup>

이런 상황은 일본의 패전이 기정사실화된 8월 초에도 이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장제스는 공산군이 취할 군사 행동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 공산당의 수항 움직임에 대해 주중미국대사 헐리도 본국 정부에 보고서를 보내 우려를 나타냈다.

민약 미국이, 그리고 유엔이 중국 내 무장 정치 세력이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하고 일본군의 무기를 인수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중국에서의 참혹한 내전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이미 일본의 항복 조건에 일본군의 모든 무기, 즉 일본군 병사들 손에 있는 무기, 일본을 지원하는 중국 친일군대의 무기, 일본과 협력하는 중국 유격 조직의 무기를 모두 중국 국민정부에 인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항복 조건으로 일본이 중국 내에서 국민정부에 맞선 어떤 무장 세력에도 무기를 공급하려는 시도를 처벌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웨드마이어(Albert C. Wedemeyer) 장군은 참모총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일본군이 공산군에게 무기를 인도할 경우 어떤 상황이 초래될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나는 웨드마이어 장군의 보고에 동의하며, 국무부가 항복 조건에 일본군 무기가 중국 공산군에게 절대로 인도되지 않도록 명시할 것을 권고합니다.<sup>31)</sup>

헐리는 수항에 참여하겠다는 주더(朱德)의 요구는 장제스 정부에 대한 도전이고, 또한 포츠담의 결정과 충돌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30) 정형아, 『동아시아 전후처리와 중·소 갈등(1941~1952)』, 90쪽.

31) “The Ambassador in China(Hurley) to the Secretary of State”(Aug. 12, 1945), *FRUS 1945 The Far East, China, vol.7*, pp.515-516 ; Harry S.Truman, *Memoirs by Harry S.Truman 1: years of decisions*, New York : Doubleday & Company Inc., 1955, p.365

헐리의 의견처럼, 미국 지도부는 이제 막 전쟁이 종식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전쟁의 불씨를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들이 장제스 정부를 압박하여 연합정부를 종용한 것도 전쟁을 빨리 끝내고 “전장의 젊은이들을 빨리 집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sup>32)</sup> 따라서 웨드마이어도 맥아더(Douglas MacArthur)와 니미츠(Chester W. Nimitz)에게 전보를 보내 중국이 안정적으로 수항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중국 정부군을 일본군이 항복할 집결지로 신속히 보내기 위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국 공산당이 무기를 빼앗아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영토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sup>33)</sup>

연합국의 결정에 따라 중국전구 수항 총사령관이 된 장제스는 국민정부가 항복의 접수와 무장해제를 주도하되, 일본과 충돌이 없이 진행하고, 공산군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부대는 국민정부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 연합군 협정이 규정한 항복과 관련된 사항을 이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여기서 그가 강조한 국민정부가 강조한 연합국 규정의 핵심은 중국 전구에서 일본군은 장제스에게 항복해야 하며, 중국 전구의 모든 무장부대는 장제스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sup>34)</sup>

우리 피점령구[淪陷區]에 있는 각 지하부대와 친일군대[僞軍]는 현재 주둔지에서 지방 치안유지와 민중보호에 임해야 한다. 특히 친일군대는 이 기회를 빌려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노력하며 자숙해야 한다. 본 위원장[장제스]의 허가 없이 임의로 주둔지를 이동

32) Harry S. Truman, *Memoirs by Harry S. Truman 1: years of decisions*, p.366.

33) Harry S. Truman, *Memoirs by Harry S. Truman 1: years of decisions*, p.378.

34) Harry S. Truman, *Memoirs by Harry S. Truman 1: years of decisions*, pp.371-372.

하거나 군대재편의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sup>35)</sup>

또한 장제스는 제18집단군[팔로군] 총사령관 주더에게도 별도로 전보를 보내 일본군 항복에 관하여 지시하였다.

옌안(延安) 제18집단군 주더 총사령관, 평덕화이(彭德懷) 부총사령관 ; 현재 일본은 정식으로 4대 연합국에 항복을 선언하였다. 연합국은 항복수락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 중이며, 곧 최종 결정이 날 것이다. 본 위원장은 부대에게 일률적으로 본 회[국방최고위원회와 중앙상무위원회]의 명령에 복종하여 연합국 협정에 따라 항복과 관련된 모든 결정을 이행하도록 지시하였다. 해당 집단군[팔로군]의 모든 부대는 원래 주둔지에서 대기하고, 각 전구 작전 구역 내의 부대는 해당 전구 사령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적의 무장해제, 포로 수용, 친일부대처리, 수복지역의 질서회복과 정권 행사 등을 총괄 결정하여 명확히 명령을 하달하고 시행 중이다. 국가 명령의 존엄과 연합국 공동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모든 부대는 임의의 행동을 중단하고 분명한 명령 외의 일체 행동을 금한다. 즉시 부대가 이를 엄중히 준수하도록 지시하기 바란다.<sup>36)</sup>

즉 장제스는 중국 공산당군의 부대에게 중국을 대표하는 정권인 국민정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원 위치에 주둔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주더는 장제스의 명령을 무시하고 중국 공산당 중앙의 지시에 따라 8월 10일과 11일 사이에 일곱 차례에 걸쳐 명령[七道命命]을 내렸다.<sup>37)</sup> 짧은 명령이었지만, 수항과 일본군의 무장해제

35) 秦孝儀主編,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下, 786쪽.

36) 秦孝儀主編,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下, 788쪽; 「蔣中正電朱德彭德懷」(1945.8.11.), 『蔣中正總統文物: 勝利受降(三)』, 典藏號: 002-090105-00014-118.

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계획은 구체적이였다. 그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해방구의 공산군은 인근 친일부대·친일정권에 항복과 무장해제를 요구하고, 거부 시에는 그들을 소멸시켜 해당 지역의 행정을 접수한다. 둘째, 공산군 각 부대는 랴오닝(遼寧)·지린(吉林)·러허(熱河) 등 동북지방으로 진출하여 소련군과 협력한다. 셋째, 몽골군과 협력해 내몽골 및 국경지역의 친일부대에 항복을 받고 북쪽으로 진출한다. 넷째, 산시(山西)공세를 위해 타이위안(太原) 진입을 준비한다. 다섯째, 전국 주요 철도·교통선에서 적과 친일세력을 공격·소탕하여 항복을 압박한다. 여섯째, 화북의 조선의용대는 공산군과 함께 동북으로 이동하여 조선인을 조직하고 소련군의 조선 해방 임무에 협조한다. 일곱째, 공산군은 점령한 도시를 군사적으로 관리한다.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도 항일부대이므로 당연히 항전승리의 과실을 나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주더는 내부적인 명령 외에도 웨더마이어에게 워싱턴으로 보내는 장문의 서신을 전달하기도 하였다.<sup>38)</sup> 주더는 충칭의 장제스 정부가 아닌 공산당이 중국에서의 전쟁 부담을 짊어졌으므로 항복의식에 참여하고 현지의 수항을 진행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였다.<sup>39)</sup> 중국 공산당은 동북과 조선뿐만 아니라 화북지역까지 주요교통과 도시에서 소련군과 협력하여 일본군의 항복을 받고 점령할 계획이였다. 이에 따라 뤼정차오(呂正操), 장쉐스(張學詩), 완이(萬毅), 리렌창(李連昌) 등

37) 秦孝儀主編,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下, 789쪽; 『陳誠副總統文物: 共黨延安總部發布之命令』, 典藏號: 008-010702-00017-001; 中共中央文獻研究室 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 編, 『周恩來軍事文選』第二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7, 534-538쪽.

38) “The Ambassador in China(Hurley) to the Secretary of State”(Aug. 17, 1945), *FRUS 1945 The Far East, China, vol.7*, p.518

39) Harry S. Truman, *Memoirs by Harry S. Truman 1: years of decisions*, p.378.

의 부대와 조선의용군에게도 동북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였다.<sup>40)</sup> 또한 저우언라이는 “소련이 참전하고 일본군이 항복하였으며, 내전이 임박하였다. 화남(華南)에서는 곧 국민당과 우리가 일본을 둘러싸고 쟁탈할 것이고, 동시에 우리를 함께 압박하는 국면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았다.<sup>41)</sup> 국공 양측 모두 항전승리를 기대하면서도 승리 후 전개될 국공의 각축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전후 방침은 일찍이 1945년 4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옌안에서 개최한 중국 공산당 제7차 전국대표대회의 마오쩌둥 담화에서 드러난 바 있다. 마오쩌둥은 국민정부가 일본과 타협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계하고 적극적인 항일로 일본침략자들을 철저히 소멸시킬 것을 국민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하였다.<sup>42)</sup> 또한, 그는 “중국혁명은 단독으로 승리할 수 없다. 중국혁명은 반드시 소련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며 소련과의 협력도 강조했다.<sup>43)</sup> 다만 주더가 일곱 차례 명령을 하달하는 동안에도 중국 공산당은 소련으로부터 협력에 대한 어떠한 메시지도 확인하지는 못한 상태였다. 스탈린은 모스크바에서 국민정부 대표와 협상 중에 있었고, 자신이 원하는 참전조건을 얻기 위해 “만일 중·소 양국이 신속하게 협상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하면, 공산세력이 만주에 진입할지도 모른다”며 중국 대표 쑹쯔원(宋子文)을 압박하였다.<sup>44)</sup> 결국 8월 14일 장제스의 국민정부는 「중소우호동맹조약」을 체결하였고, 소련은 공식적으로 장제스와 국민정부를 중국의 대표정권으로 인정하고 협력

40) 秦孝儀主編,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下, 789쪽.

41) 中共中央文獻研究室 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 編, 『周恩來軍事文選』第二卷, 541쪽.

42) 모택동 지음, 김승일 옮김, 『모택동선집』3, 313쪽.

43) 楊奎松, 『中共與莫斯科的關係』, 臺北: 東大, 1997, 519쪽.

44) W. A. Harriman, *Special Envoy to Churchill and Stalin, 1941~1946*, N.Y.: Random House, 1975, p.496.

하겠다고 약속하였다.<sup>45)</sup> 8월 15일 일본이 공식적으로 항복을 선언한 날, 소련이 대외에 파트너로 표명한 정권은 중국 공산당이 아니라 장제스의 국민정부였다.

소련과 동맹조약을 체결한 국민정부는 8월 15일 난징에 있던 일본의 중국파견군 최고지휘관 오카무라 야스지(岡村寧次)에게 6개항의 항복원칙을 보냈고,<sup>46)</sup>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중국전구 항복회담을 개최하였다. 8월 21일 오카무라 야스지가 파견한 이마이 다케오(今井武夫) 총참모부장(總參謀副長) 일행이 즈장(芷江)에 도착하였고, 중국 육군총사령부는 주중 일본군 최고지휘관 오카무라 야스지에게 보내는 비망록을 전달하였다.[中國戰區中國陸軍總司令部備忘錄 中字第1號(1945.8.21.)] 그 후 중국 육군 총사령부는 총 24회에 걸쳐 중국 전구 각지의 수항에 관련한 비망록을 오카무라 야스지에게 보냈다.

이들 비망록은 세부적인 내용을 수록하였으나 기본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중국지역 내 일본 육·해·공군 및 보조 부대에 대하여 각 부대는 현재 주둔지 및 지정된 장소에서 중국 정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장제스 또는 허잉친(何應欽)이 지정하지 않은 부대 지휘관에게 일본 육·해·공군은 항복도, 무기와 물자의 인도도 해서는 안 되며, 지역관할권을 이양해서도 안 된다. 둘째, 현재 주둔지에서 질서 유지의 책임을 다하되, 장제스나 허잉친이 지정한 부대와 책임 장관이 접수할 때까지 질서 유지의 의무를 수행하며, 장제스나 허잉친이 지정하지 않은 행정관이나 대리인에게 행정기관을 이관해서는 안 된다.<sup>47)</sup>

45) 정형아, 『동아시아 전후처리와 중·소 갈등(1941~1952)』, 116쪽.

46) 中國陸軍總司令部 編, 『中國戰區中國陸軍總司令部處理日本投降文件彙編(上)』(1946), 1-2쪽.

47) 中國陸軍總司令部 編, 『中國戰區中國陸軍總司令部處理日本投降文件彙編(上)』, 37-38쪽.

일본 측도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핵심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특히 “장제스나 허잉친이 지정하지 않은”의 의미를 이마이 총참모부장은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2일과 23일, 이마이 총참모부장은 중국과 미국 전문가가 참석한 질의 응답시간 때 공산당에 관하여 “평소 공산당과 결탁한 일본인 중에는 ‘앞으로 일본군의 출로가 공산당과 타협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는 의견도 있으나, 우리들은 천황의 일관된 의지를 받들어,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sup>48)</sup> 또한, 오카무라 야스지도 중국 측이 보낸 각호 비망록에 대한 회신에서 국민정부 측에 항복하고 무장을 인도하겠다는 뜻을 전하였다.<sup>49)</sup> 즉, 장제스 측이 원하는 공산당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중국 정부와 일본군 중국파견군 양측은 중국 공산당을 배제하고 국민정부가 수항과 무장해제 실행의 주체가 된다는 것에 합의하였고, 전국에서 일본군은 중앙정부가 지정한 장관에게 각기 항복을 진행하고 무장을 인도하기로 하였다.

전국은 소련이 주둔한 동북지역을 제외하고 15개 지구로 나누었고, 각 지구 수항을 주관할 장관을 국민정부가 임명하여 8월 21일 발표하였다. [아래의 표 참조] 국민정부는 또한, 국민정부군이 도착하여 수항과 무장해제를 집행하기 전까지 각지의 질서와 치안 유지를 중국 공산당군이 아닌 현지의 일본군에게 맡기겠다는 계획도 수립하였다.

48) 中國陸軍總司令部 編, 『中國戰區中國陸軍總司令部處理日本投降文件彙編(上)』, 6쪽.

49) 中國陸軍總司令部 編, 『中國戰區中國陸軍總司令部處理日本投降文件彙編(上)』, 63~84쪽.

#### IV. 수항과 무장해제를 둘러싼 국·공의 각축

중국 국민정부와 중국 지역 일본군 최고지휘관의 합의에 따라 중국정부는 8월 27일 육군총참모본부의 부참모장 령신(冷欣) 등을 파견하여 난징에 전진지휘소를 설치하고 일본과 항복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논의와 인수준비 작업을 시작하였다. 9월 3일, 일본 본토에서는 일본 항복대표 시게미쓰 마모루(重光葵)와 우메즈 요시지로(梅津美治郎)가 항복문서에 서명하였다. 중국에서는 9월 9일 난징에서 중국 전구의 일본군 항복조인식을 거행하였다. 이때 중국 측 대표로는 육군총사령관 허잉친이, 일본 측 대표로는 오카무라 야스지가 참석하였다.

항복조인식을 마친 후, 각지에서는 수항 작업이 시작되었다. 1946년 발간된 중국 육군 총사령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동북지역의 관동군과 북위 16도 이북의 베트남 지역, 그리고 타이완 주둔 일본군을 제외한 중국 전구의 일본군 부대로는 26개 사단, 1개 전차사단, 1개 비행사단, 22개 독립혼성여단, 11개 독립보병여단, 1개 기병여단, 13개 독립경비대, 1개 방위대, 1개 지대가 있었다.<sup>50)</sup> 이들 부대는 오카무라 야스지의 지휘 하에 있던 중국본토의 일본군 부대였다. 다음 표는 각 일본군 집결지역과 해당 지역 수항 주관 장관을 정리한 것이다.

50) 中國陸軍總司令部 編, 『中國戰區中國陸軍總司令部處理日本投降文件彙編(上)』, 29-31쪽.

[표] 중국지역의 수항

수항부대	주관 장관(중국)	항복대표(일본)	집결지	수항지점	수항시간
제1방면군	盧漢	土橋勇逸	북위16도 이북의 베트남지역	베트남 하노이	1945.9.28.
제2방면군	張發奎	田中久一	廣州, 雷州半島, 海南島(瓊山)	廣州	1945.9.16.
	C. H. Harcourt (영국해군 소장)		홍콩	홍콩	1945.9.16.
제7전구	徐漢謀	田中久一	曲江, 潮州, 汕頭	汕頭	1945.9.21.
제4방면군	王耀武	阪一西良	長沙, 衡陽, 岳陽	長沙	1945.9.15.
제9전구	薛岳	笠原幸雄	南昌, 九江	南昌	1945.9.14.
제3전구	顧祝同	松井大太郎	杭州, 金華, 寧波, 廈門 등	杭州	1945.9.18.
제3방면군	湯恩伯	松井大太郎	上海	上海	1945.9.11.
		十川次郎	南京	南京	1945.9.12.
제6전구	孫蔚如	岡部直三郎	武漢, 宜昌, 沙市	漢口	1945.9.18.
제10전구	李品仙	十川次郎	徐州, 海州, 蚌埠, 安慶	徐州	1945.9.24.
제11전구	孫連仲	根本博	天津, 北平, 保定, 石家莊	北平	1945.10.10.
	李延年	細川忠康	青島, 濟南, 德州	濟南	1945.12.27.
제1전구	胡宗南	鷹森孝	洛陽, 開封, 新鄉	鄭州	1945.9.22.
제5전구	劉峙	鷹森孝	鄆城	鄆城	1945.9.20.
제2전구	閻錫山	澄田昧四郎	山西	太原	1945.9.13.
제12전구	傅作義	根太博	熱河, 察哈而, 綏遠	歸綏	1945.9.28.
타이완성 경비사령부	陳儀	安藤利吉	臺灣, 澎湖	臺北	1945.10.25.

※ 『中國戰區中國陸軍總司令部處理日本投降文件彙編(上)』 [附表4]와[附表5]; 林桶法, 『戰後中國的變局: 以國民黨爲中心的探討』, 臺北: 商務印書館, 2003, 12-13쪽; 『支那派遣軍武裝解除狀況一覽表』, 『支那派遣軍終戰及び復員資料 上奏(終戰後に於ける支那派遣軍の一般狀況に就て)』, 1286-1292쪽 참조.

9월 9일 항복의식을 마친 후 중국육군총사령부는 일본군 각 부대에 대해 ‘○○지역 일본관병지구 선후(先後)연락부’로 명칭을 변경하라고 훈령을 내렸고, 오카무라 야스지가 선후연락부 총부장, 일본군 각 군 사령관이 각 지역 연락부장을 맡았다.<sup>51)</sup> 연락부장은

51) 郭廷以, 『中華民國史事日誌』第四冊,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2015, 393쪽.

각 수항구 주관대표와 일치하며, 각 수항구에서 허잉친과 오카무라 야스지가 합의한 대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일본군의 무장해제는 계획대로 진행하였으나 화중 연안과 화북 등 지역에서는 다소 지연되었다. 그 원인에는 교통로의 손실로 인해 국민정부군 부대가 이동할 수 없는 상황과 더불어 중국 공산당 문제도 포함되었다. 8월 17일 웨드마이어 장군은 “중국 전구 내의 모든 수항업무는 중국대표가 그 책임을 맡아 집행하며, 미국은 수송기를 동원해 중국 관원과 군대를 목적지로 수송하는데 협조하겠다.”는 뜻을 국민정부에 전했다.<sup>52)</sup> 따라서 철도와 도로의 파손으로 인한 수송의 어려움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국의 협조로 해결할 수 있는 물리적인 문제였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중국 공산당과의 장기적인 갈등이었다.

8월 9일 소련군이 출병했다는 소식과, 8월 10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新華日報(太行版)』는 연속해서 호외를 발행하여 마오쩌둥과 주더의 성명, 소련의 동북 출병 소식 등을 전했다. 8월 10일의 제1호 호외는 마오쩌둥의 성명 내용으로, 마오쩌둥은 “항전은 반격의 단계로 진입했다고 하면서 해방구를 맹렬히 확대하고 항복을 거부하는 모든 침입자와 그 주구들을 소멸하라”고 지시하였다.<sup>53)</sup> 그리고 8월 11일의 제3호 호외는 “해방구의 모든 항일무장부대는 즉시 출동하여 친일부대의 무장을 해제하고 항복을 받으라”는 주더의 명령을 전하였다.<sup>54)</sup> 제3호 호외에 수록된 주더의 명령을 그가 내린 일곱 차례 명령의 첫 번째 것이었고,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항복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공산당은 계획했던 대로 수항과 무장해제 업무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 8월 13일의 호외는 마오쩌둥이 쓴 「장제스는 내란을 도발하고

52) 秦孝儀主編,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下, 806쪽.

53) 「毛主席發表聲明 抗戰進入反攻階段」, 『新華日報(太行版)』號外第1號(1945.8.10.)

54) 『新華日報(太行版)』號外第3號(1945.8.11.)

있다(蔣介石挑動內亂)는 제목의 평론이었다. 평론에서 마오쩌둥은 주더 총사령관의 명령은 “일본이 저항을 중지할 때까지 일본과의 전쟁을 계속한다”는 포츠담 선언 제2조의 규정을 단호하게 실행에 옮긴 것이고, 장제스의 명령이야말로 그 자신이 서명한 포츠담선언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면서 질책하였다.<sup>55)</sup>

반면, 장제스는 주더에게 공산군은 원위치에서 최고국방위원회의 지시를 기다리라는 전보를 보냈고, 8월 14일 일본이 공식적으로 항복하자 장제스는 마오쩌둥에게 충칭으로 와서 회담하자고 초청했다.<sup>56)</sup> 그러나 중국 공산당 중앙은 주더의 명의로 미·영·소 3국에 보내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연합군 최고 통수권자가 일본군에게 장제스 군대에 항복하고 아군(중국 공산당군)에게 무기를 넘기지 말라고 강요한다면 이는 장제스의 내전을 돕는 것과 같으므로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것이었다.<sup>57)</sup> 마오쩌둥은 16일 장제스에게 전문을 보내어 거절의 뜻을 전하면서 주더가 국민정부에 보낸 전문에 대한 답신을 먼저 확인한 후 충칭회담을 고려해 보겠다고 하였다.<sup>58)</sup>

주더가 요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일제의 항복을 수락하고 항복 협정 및 조약을 체결할 때는 사전에 ‘해방구’ 항일 인민 무장 역량과 의견을 조율하여 일치시켜야 한다.
- (2) 중국 ‘해방구’ 및 점령구의 모든 항일 인민 무장 역량은 포츠담 선언 조항 및 동맹국이 규정한 항복 처리 방법에 따라 포위된 일제 군대의 항복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무기와 자재를 수거할 권리가 있다.
- (3) ‘해방구’ 및 ‘점령구’ 인민 항일 무장

55) 모택동 지음, 김승일 옮김, 『모택동선집』4, 서울: 범우사, 2017, 31쪽.

56) 秦孝儀主編,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下, 800쪽.

57) 「中國解放區抗日軍朱德總司令致美英蘇三國說帖」(1945.8.15.), 黨史教研室選, 『中共黨史參考資料(五)』抗日戰爭時期(下), 北京: 人民出版社, 1979, 449쪽.

58) 秦孝儀主編,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下, 804-805쪽.

역량은 적의 항복을 접수하고 전후처리 작업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가 있다. (4) '해방구' 및 모든 항일 무장 역량은 평화 회의 및 국제 연합 회의에 참여할 대표를 선출할 권리가 있다. (5) 장제스 위원장에게 내전 중단을 요청하며, 그 방법은 '해방구' 군대가 포위한 적군은 '해방구' 군대가 항복을 접수하고, 국민당 군대가 포위한 적군은 국민당 군대가 항복을 접수하는 것이다. (6) 즉시 각 정당 회의를 소집하여 민주적인 '연합 정부'를 수립하고 모든 정치 경제의 민주개혁을 실시한다.<sup>59)</sup>

장제스와 국민정부는 주더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8월 18일 육군총사령관 허잉친은 중국 전구의 수항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발표하여 정부가 지정하지 않은 군대가 마음대로 수항을 받으면 국방최고위원회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하였다.<sup>60)</sup> 국민정부는 20일에 다시 마오쩌둥에게 전문을 보내 수항 규정은 연합국의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주더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동맹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며, 대전이 막 끝났는데 내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마오쩌둥이 속히 충칭으로 와서 회담에 참여하라고 정중히 촉구하였다.<sup>61)</sup>

그 사이 이미 「중소우호동맹조약」을 체결한 스탈린도 중국이 더 이상 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자체 무장력을 해산하고 국민정부에 참여하여 장제스가 이끄는 중국이 통일할 수 있기 바라며, 소련군이 동북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동안 동북의 행정 주권을 국민정부에 이관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sup>62)</sup> 소련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는 국민당과 무장투쟁하는

59) 秦孝儀主編,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下, 804-805쪽.

60) 秦孝儀主編,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下, 806쪽.

61) 秦孝儀主編,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下, 807쪽.

62) 張玉法, 『中華民國史稿』, 臺北: 聯京, 1998, 442쪽; 중국 공산당중앙당사연구소, 『중국 공산당 역사』제1권(下), 서울: 서교출판사, 2016. 394쪽.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으며, 국민정부와 타협할 것을 요구하였다.<sup>63)</sup> 8월 28일 마오쩌둥은 충칭으로 와서 회담에 참가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정부도 중국 공산당도 국민정부만을 지지할 것이라는 소련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은 아니다. 8월 25일 중국 공산당은 「현 시국에 대한 선언(對目前時局宣言)」을 발표하여 국민정부가 중국 공산당의 해방구 점령을 승인하고 중국 공산당이 해방구 군민을 대표해서 일본군과 친일부대의 수항을 승인하라고 요구하였다.<sup>64)</sup> 마오쩌둥이 충칭으로 와서 회담테이블에 앉기는 했으나, 중국 공산당은 「포츠담선언」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점령하고 있는 해방구와 그 주변의 일본군과 친일부대에게 항복을 받고 무장해제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계속하였다. 따라서 8월 11일 주더의 명령 발표 이후 중국 본토 각지에서 발생하던 충돌 소식은 충칭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이어졌다.

산시(山西)지역은 제2전구 사령관인 옌시산이 주관하여 수항하기로 하였고, 수항지점은 타이위안이었다. 수항 주관 장관 중에 가장 나이가 많고 계급도 높았던 옌시산은 8월 18일 부대를 이끌고 타이위안에 진입하였다. 옌시산은 타이위안에 진입한 이후 공산군 제 386여단의 227연대와 홍통현(洪洞縣)유격대 등 중국 공산당부대를 비롯한 산시지역의 국민정부군을 공격하였고, 잠편(暫編)제49사단 제2, 제3연대가 은폐, 도주 중인 공산군을 추격, 격퇴하였다든가, 격퇴한 중국 공산당군이 다시 성 주변에서 매복하고 있어 방비해야 한다는 등을 보고하였다.<sup>65)</sup> 같은 날 주중미국대사관이 수집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시성의 공산군은 일본이 포기하거나 항복한 무

63) 중국 공산당중앙당사연구실, 『중국 공산당 역사』제1권(下), 394쪽.

64) 秦孝儀主編,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下, 812쪽.

65) 『蔣中正總統文物：抗命禍國擴軍叛亂—抗戰時期(九)』, 典藏號：002-090300-00210-193; 002-090300-00210-200; 002-090300-00210-220; 002-090300-00212-142; 『蔣中正總統文物：增編(九)』, 典藏號：002-090300-00224-419.

기와 군수품을 취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명령도 따르지 않았다. 또한 시안의 여러 지역에서 공산당의 선전은 일본군의 지배에서 해방을 가져올 수 있게 지원한 연합군에 대한 감사를 잊게 할 뿐만 아니라 내전이 발발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도 하게 된다.<sup>66)</sup>

옌시산은 수항의식을 치르지 않은 채 일본 측 대표 스미다 라이시로(澄田隸四郎)에게 항복문서를 받고,<sup>67)</sup> 철도 경비의 임무를 맡고 있던 일부 부대를 제외하고는 9월 중순경 제13수항구[山西]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완료했다. 다만, 중국 공산당과의 갈등으로 인해 산시성의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일본군 독립 제4경비대 주력은 무기를 차용하는 형식으로 다시 무장하고 중국군과 요충지 경비임무를 맡았다.<sup>68)</sup>

산둥(山東)지역에서도 8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국공 사이에 교전이 벌어졌다. 일본이 항복하던 시점에 이미 중국 공산당의 팔로군과 유격부대의 활동이 두드러져서 옌타이(煙臺), 웨이하이(威海) 등 주요도시와 칭다오(靑島) 외각의 자오셴(膠縣)을 이미 그들이 점령하고 있었다.<sup>69)</sup> 장제스는 허잉친에게 칭다오에 지원부대를 신속히 파견하고, 미군뿐만 아니라 항복을 위해 현지에 집결 중인 일본군 및 친일부대와 협조하여 중국 공산당군을 저지하라고 지시하였다.<sup>70)</sup> 현지의 일본군도 공동방어에 동의하였고, 9월 말 미군

66) "The Second Secretary of Embassy in China(Hurley)"(Aug. 18, 1945), *FRUS 1945 The Far East · China, vol.7*, p.447.

67) 郭廷以, 『中華民國史事日誌』第四冊, 395쪽.

68) 防衛庁防衛研修所戰史室 著, 『昭和20年の支那派遣軍< 2 >: 終戦まで』, 朝雲新聞社, 1971, 571쪽.

69) 『蔣中正總統文物: 抗命禍國擴軍叛亂—抗戰時期 (九)』, 典藏號: 002-090300-00210-230; 『蔣中正總統文物: 抗命禍國擴軍叛亂—抗戰時期 (七)』, 典藏號: 002-090300-00208-301.

70) 『蔣中正總統文物: 抗命禍國苛擾殃民—抗戰時期 (十四)』, 典藏號: 002-090300-00215-176; 『中國戰區中國陸軍總司令部處理日本投降文件彙編(下)』, 23쪽.

도 칭다오에 상륙하였다.<sup>71)</sup> 중국 정부 관계자가 아직 도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 측과 협의하여 미 제7함대 사령관이 칭다오 지역의 일본군 항복조인식을 주관하였고, 10월 25일에 거행되었다.<sup>72)</sup> 장제스에게는 미군 해병 제6사단부대가 대거 참석하여 중미의 우의를 돈독히 했다고 보고되었다.<sup>73)</sup>

텐진 지역에서는 국민정부군이 아직 도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9월 30일 탕구(塘沽)에 상륙한 미 해병대가 10월 1일부터 텐진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118사단에게 경비를 인계받았다. 미 해병대는 10월 6일 항복조인식을 거행하였고, 11일에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였다. 국민정부 측 수항 주관 부대인 제94군은 21일에 텐진에 진주하였으나, 그들이 도착하기 전 공산군이 이미 텐진과 주변 철도를 포위하고 무력을 행사하면서 치안이 악화된 상황이었다.<sup>74)</sup>

당시 일어난 충돌 중에는 국공의 충돌뿐만 아니라 일본군과 중국 공산당군의 충돌, 친일부대와 중국 공산당군 사이의 충돌도 있었다. 일본군과 친일부대는 오카무라 야스지의 지시에 따라 연합군과 국민정부군에게는 항복하기로 하였고, 중국 공산당군에게는 항복을 거부하면서 ‘항복거부’를 해결하려는 전투가 벌어지기도 하였다.<sup>75)</sup> 종전 당시 국민정부의 군대는 대부분 서남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화남과 화북은 여전히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지척에는 중국 공산당군이 있었다. 일본 방위연구소가 편찬한 『昭和20年の支那派遣軍< 2 >: 終戦まで』는 장제스와 그 수

71) 『蔣中正總統文物: 勝利受降 (二)』, 典藏號: 002-090105-00013-062; 『蔣中正總統文物: 勝利受降 (四)』, 典藏號: 002-090105-00015-050; 『蔣中正總統文物: 勝利受降 (三)』, 典藏號: 002-090105-00014-104.

72) 防衛庁防衛研修所戦史室 著, 『昭和20年の支那派遣軍< 2 >: 終戦まで』, 571쪽.

73) 『蔣中正總統文物: 勝利受降 (二)』, 典藏號: 002-090105-00013-364.

74) 防衛庁防衛研修所戦史室 著, 『昭和20年の支那派遣軍< 2 >: 終戦まで』, 570쪽.

75)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 『中國人民解放軍戰史』第2卷, 北京:軍事科學出版社, 1987, 512쪽.

뇌들이 보인 호의에 따라 일본군 전군이 종래의 지휘조직을 유지하며 자연스럽게 거류민을 보호하고 자위생존의 태세를 가지고 평온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동시에 소련군의 ‘비행(非行)’, 공산군의 ‘횡포’로 인한 불안감도 기술하였다.<sup>76)</sup> 일본군이 중국 공산당군에게 항복하면 서남지역을 제외한 전 중국이 중국 공산당군에게 넘어갈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항복조인식 직후인 9월 13일, 중국 육군총사령관 허잉친은 “지상 경계임무는 중국경비부대가 모두 도착하기 전까지 원래의 부대가 경비책임을 담당하고 중국 지상경비부대가 도착한 후 중국 공군 지역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지상경계임무를 순차적으로 인수인계한다”[軍補第3號 命令(1945.9.13.)]는 명령을 별도로 하달하였다.<sup>77)</sup> 일본이 정식으로 항복문서에 조인하고 일본군은 장제스의 군대에게 항복하겠다고 하였으므로, 국민정부는 중국 공산당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질서와 치안의 불안정한 상황을 국민정부군이 도착하기 전까지 일본군 기존무장에게 일임한다는 공식 명령을 내린 것이었다.

동북지역에서는 소련이 관동군에게 항복을 받기로 하였다. 소련은 공식적으로는 장제스 정부를 승인하였고, 국공 양측이 충돌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세력이 소련과 인접한 동북지역까지 침투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sup>78)</sup>

중국 공산당은 독일이 항복을 선언한 직후부터 지린(吉林)·헤이룽장(黑龍江)·랴오닝(遼寧)·내이멍구(內蒙古)의 선점이 중국 공산당 승리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었다.<sup>79)</sup> 따라서 소

76) 防衛庁防衛研修所戦史室 著, 『昭和20年の支那派遣軍< 2 >: 終戦まで』, 567쪽.

77) 中國陸軍總司令部 編, 『中國戰區中國陸軍總司令部處理日本投降文件彙編(下)』, 26쪽.

78) 중국 공산당중앙당사연구실, 『중국 공산당 역사』제1권(下), 394-395쪽.

79) 中共中央文獻研究室, 『毛澤東年譜(1893-1949)(上卷)』, 601쪽.

련이 동북으로 출병하자, 협조에 대한 소련 측의 어떠한 약속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마오쩌둥은 소련군대와 연합할 것이라고 선언하였고, 중국 공산당군 인원을 분산하여 동북지역으로 진입하게 하였다. 타이완 학자 장위파(張玉法)는 소련군은 8월 23일 동북 전역을 점령한 후 중국 공산당군과 연계에 대해 스탈린의 승인을 얻었고, 그에 따라 중국 공산당군은 동북으로 대거 진입하였다고 기록하였다.<sup>80)</sup> 그러나 그 출처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스탈린의 승인 여부를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소련극동군 총사령관 바실레프스키(Aleksandr M. Vasilevskii)는 팔로군의 명의를 사용하지 않고, 또한 소련군과 접촉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군의 비공식적인 동북 진입과 활동을 눈감아 줄 수 있다고 중국 공산당 측과 합의하였다.<sup>81)</sup> 9월 초 중국 공산당 제16군구의 청커린(曾克林)부대도 소련군과 어렵게 교섭을 진행하였고, 소련군으로부터 동북의 대도시가 아닌 선양의 교외지역 쑤자툰(蘇家屯)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동의를 얻었다.<sup>82)</sup> 중국 공산당군은 선양에 집결하여 ‘동북인민자치군’이라는 이름으로 선양을 점수하였다.<sup>83)</sup> 그리고, 동북에 출병한 소련군은 중국 공산당군의 존재와 활동을 묵인하거나 비공식적으로 중국 공산당군을 지원하였다.

병력을 화북과 동북으로 수송하는데 어려움을 겪던 국민정부군이 드디어 미군의 지원을 받아 동북점수를 시작하려던 것과 비슷한 시기인 9월 19일 중국 공산당중앙은 “북으로 발전하고 남으로 방어한다”는 방침을 추진하였다.<sup>84)</sup> 당시 마오쩌둥은 충칭에서 장제스와 회담 중이었는데 이 전략에 따라 스스로 먼저 화남 근거지

80) 張玉法, 『中華民國史稿』, 444쪽.

81) 薛銜天, 「駐東北蘇軍代表飛赴延安內情」, 『炎黃春秋』2003年第2期, 49쪽.

82) 孟憲章, 『蘇聯出兵中國東北』,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5, 229~230쪽.

83) 張玉法, 『中華民國史稿』, 444쪽.

84) 中共中央黨史文獻研究院·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 編, 『中國共產黨軍事工作重要文獻選編』第一卷,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2023, 299쪽.

를 포기하고 공산군을 강북으로 이동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국민당에 대한 양보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소련군의 비공식적인 지원을 확인하였으므로 러허, 차하르 두 성(省)과 동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한 이를 근거로 국민당과 회담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반영한 것이었다.<sup>85)</sup>

그 후 국민정부군은 잉커우(營口)와 후루다오(胡蘆島) 등으로 병력을 상륙시켜 동북 진입을 시도할 때마다 현지 중국인 무장부대의 공격을 받아 상륙에 실패하였다.<sup>86)</sup> 그들은 출병한 소련군과의 합의를 통해 이미 동북지역에 진입해 있던 중국 공산당군 부대였다. 소련군과 함께 동북으로 진입한 동북항일연군도 소련군의 명의로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중국 공산당군이 동북지역 향촌에서 근거지를 확장할 수 있게 지원하였으며, 그들이 습득한 무기장비를 중국 공산당군에 넘겨주었다.<sup>87)</sup> 이처럼 소련이 출병한 동북 지역에서 중국 공산당군은 국민정부군과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둘러싸고 각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군의 항복과 무장해제 문제를 오래 견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민정부군보다 먼저 동북 지역을 선점하는 쪽을 선택함으로써 향후의 각축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85) 中共中央黨史文獻研究院·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 編, 『中國共產黨軍事工作重要文獻選編』 第一卷, 298-299쪽.

86) 정형아, 『동아시아 전후처리와 중·소 갈등(1941~1952)』, 177쪽.

87) 정형아, 『동아시아 전후처리와 중·소 갈등(1941~1952)』, 212~238쪽 참조.

## V. 나오며

이 글은 1945년 일본군의 항복과 무장해제 과정이 중일전쟁의 종식을 넘어, 전후 중국의 질서를 결정짓고 제2차 국공내전의 서막을 연 결정적 사건이었음을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 대응과 각축을 통해 조명하였다. 일반적으로 1946년 6월부터 전면화된 것으로 보는 국공내전이 사실상 1945년 8월, 일본의 항복과 동시에 시작되었음을 밝히는 것이 본 논문의 기본입장이었다.

첫째,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이자 연합군 중국전구 총사령관이었던 국민정부와 장제스는 연합국의 결정과 중앙 정부의 권위를 바탕으로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접수를 독점적으로 주도하고자 했다. 장제스는 일본군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이들의 우수한 군수 물자를 온전히 획득하여 전후 국내 질서를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장제스의 대일 태도를 ‘이덕보원’이라고 규정하기도 하나, 이는 1930년대 초반의 주장이었던 ‘양외필선안내’ 방침과 연장선상에 있었으며 그 기저에는 ‘반공’이라는 요소가 있었다. 따라서 장제스는 공산군을 포함한 모든 무장부대에 원래 주둔지에서 대기하고 일체의 임의적 행동을 금지하라는 강력한 명령을 하달했으나, 중국 공산당은 이를 항일전쟁에 대한 공산군의 역할과 기여를 무시한 조치라고 비판하였다.

둘째, 중국 공산당 지도자 마오쩌둥과 주더는 수항과 무장해제를 전후 주도권 선점의 기회로 인식하고 국민당의 명령을 즉시 거부하며 독자적인 군사 행동을 개시했다. 주더는 ‘일곱 가지 명령 [七道命令]’을 통해 팔로군과 신사군에게 일본군 및 친일부대를 무

장해제시키고 해당 지역의 행정권을 접수하려 하였다. 특히 소련군의 출병에 맞추어 전략적 요충지인 동북 지역으로의 진출을 최우선 과제로 지시했다. 이는 단순히 항일 승리의 과실을 나누려는 차원을 넘어, 국민당의 중앙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자 전면적인 군사적, 행정적 쟁탈전의 시작을 의미했다.

셋째, 1945년 8월 시점에 국제적인 요인은 특히 국공의 각축을 격화시키는 변수였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 내전 발발을 우려하여 공산군의 수항을 경계하면서 국민정부를 지원하기로 하였고, 군용수송기 등을 제공하여 국민정부군이 점령지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왔다. 반면, 소련의 대일 참전과 동북 진출은 공산당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했으며, 소련군은 중국 공산당군의 동북 진출과 현지 활동을 묵인하거나 비공식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이 “북으로 발전하고 남으로 방어한다” 전략을 가능케 하였다.

종합적으로 보면 1945년 일본의 항복 이후 중국 지역에서의 일본군 무장해제 과정은 단순한 군사적 절차가 아니라, 전후 중국의 정치 질서를 결정짓는 국공 각축의 서막이었다. 장제스의 국민정부는 연합국의 공식 승전국으로서 일본군의 항복과 무장해제를 주도할 정통성을 주장하였고, 마오쩌둥의 공산당은 해방구 확대를 통해 ‘항전의 진정한 주체’임을 내세우며 무장해제 권한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양측은 일본의 패전이라는 전환점을 계기로 항일전쟁의 협력 관계에서 곧바로 내전적 대립 구도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이 글은 1945년 중국 본토의 일본군 무장해제를 둘러싼 국공 양당의 대응과 각축이 전후 중국 내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하였고, 더불어 ‘항일전쟁의 종결’이 곧 ‘내전의 서막’으로 이어진 중국 현대사의 특수한 연속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서두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이 연구는 자료나 분석, 관점 등 여러 방면에서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다. 향후 관련한 연구가 더 충

실해지기 위해 동북지역 외의 화북·화중·화남 지역 등 여러 지역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의 각축, 중국 국내외의 다양한 입장, 미국과 소련 등 관련 국가의 개입 양상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노력을 통해 전후 질서를 보다 입체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성과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사료 및 사료집, 회고록 등

마오쩌둥, 『모택동선집』 3·4, 서울: 범우사, 2017

『支那派遣軍終戦及び復員資料 上奏(終戦後に於ける支那派遣軍の一般状況に就て)』

防衛庁防衛研修所戦史室 著, 『昭和20年の支那派遣軍 < 2 > : 終戦まで』, 朝雲新聞社, 1971

『蔣中正總統文物: 革命文獻—日本投降』

『蔣中正總統文物: 勝利受降(二)·(三)·(四)』

『蔣中正總統文物: 抗命禍國擴軍叛亂—抗戰時期(九)』

『蔣中正總統文物: 抗命禍國苛擾殃民—抗戰時期(十四)』

『蔣中正總統文物: 增編(九)』

『陳誠副總統文物: 共黨延安總部發布之命令』

『新華日報(太行版)』號外

中國陸軍總司令部 編, 『中國戰區中國陸軍總司令部處理日本投降文件彙編(上)·(下)』(1946)

秦孝儀主編,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下, 臺北: 中正文化基金會, 1978

黨史教研室 選, 『中共黨史參考資料(五)』抗日戰爭時期(下), 北京: 人民出版社, 1979

秦孝儀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三編 戰時外交(一), 臺北: 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黨史委員會, 1981

秦孝儀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五編 中共活動真相(二), 臺北: 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黨史委員會, 1981

中共中央文獻研究室 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 編, 『周恩來軍事文選』第二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7

中共中央黨史文獻研究院·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 編, 『中國共產黨軍事工作重要文獻選編』第一卷,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2023

FRUS 1945, *The Far East, China, vol. 7*

Harry S. Truman, *Memoirs by Harry S. Truman 1: years of decisions*, New York : Doubleday & Company Inc., 1955

W. A. Harriman, *Special Envoy to Churchill and Stalin, 1941~1946*,  
N.Y.: Random House, 1975

## ■ 논문

- 백봉중, 「日本の 항복과 美·蘇軍의 韓半島 進駐」, 『통일논총』제2권(1989)
- 황선익, 「중국관내지역 일본군 무장해제와 한인 병사」, 『한국학논총』제44집  
(2015)
- 최영호, 「일본의 항복과 한반도 분단」, 『역사문화연구』제62집(2017)
- 기세찬, 「중국 공산당의 대국민당전략과 실천」, 『세계역사와 문화연구』제72집  
(2024.9.)
- 下田 貴美子, 「ソ連の危機、蔣介石の危機としての1937年ドイツの日中和平調停」,  
『アジア太平洋研究科論集』卷 36(2018.9.)
- 肖凱豐, 「스チュアートによる日中和平工作の再考(1937~1941) : 教育家·民間  
外交家·宣教師としての多重役割」, 『國際公共政策研究』2025, 29(2)
- 袁旭, 「平型關戰鬥與百團大戰若干史實的考訂」, 『抗日戰爭研究』1991年第2期
- 杜春和, 「中國戰區接受日軍投降始末」, 『文史精華』1995年第8期
- 黃道炫, 「蔣介石“攘外必先安內”方針研究」, 『抗日戰爭研究』2000年第2期
- 薛衛天, 「駐東北蘇軍代表飛赴延安內情」, 『炎黃春秋』2003年第2期
- 黃自進, 「抗戰結束前後蔣介石的對日態度: ‘以德報怨’真相的探尋」, 『中央研究院近  
代史研究所集刊』第45期(2004.9.)
- 楊奎松, 「八路軍平型關戰鬥再研究」, 『“1930年代的中國”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下卷)』, 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研究所(2005)
- 劉維開, 「從南京到臺北」, 『晉陽學刊』2012年第2期
- 潘星, 「妥協與抗爭: 蔣介石與濟南事件前後的對日決策」, 『抗日戰爭研究』2014年  
第2期
- 周錦濤·王沫涵, 「中國戰區對日受降研究述評」, 『毛澤東論壇』2016年第1期.
- 吳和平·吳建宏, 「中國戰區對日受降的三個環節」, 『湖南工業大學學報(社會科學  
版)』2018年第23卷3期
- 哈曉斯, 「1945年安慶受降記」, 『江淮文史』2020年第2期
- 黎博呀, 「失敗的談判 成功的博奕—林伯渠與1944—1945年國共談判」, 『高校馬克  
思主義理論研究』2020年6(04)卷
- 魏然·鹿兮, 「毛澤東堅持以“八路軍”名號抗戰的大智慧」, 『黨史博覽』2020年第10期

黃自進, 「從《塘沽協定》看中、日兩國在華北的攻防」,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集刊』第123期(2024.3.)

## ■ 단행본

- 로이드 E. 이스트만, 『장개석은 왜 패하였는가?』, 서울: 지식산업사, 1990
- 후지와라 아키라, 『일본군사사』上, 서울: 제이앤씨, 2013
- 중국 공산당중앙당사연구실, 『중국 공산당 역사』 제1권(下), 서울: 서교출판사, 2016
- 일본역사연구회, 『태평양전쟁사 2 : 광기와 망상의 폭주』, 서울: 채륜, 2019
- 정형아, 『동아시아 전후처리와 중·소갈등(1941~195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 정형아, 『중일전쟁 시기 중·소관계와 군사협력』,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4
- 家近亮子, 『蔣介石の外交戰略と日中戦争』, 岩波書店, 2012
-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 『中國人民解放軍戰史』第2卷, 北京:軍事科學出版社, 1987
- 孟憲章, 『蘇聯出兵中國東北』, 北京: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5
- 楊奎松, 『中共與莫斯科的關係』, 臺北:東大, 1997
- 張玉法, 『中華民國史稿』, 臺北:聯京, 1998
- 呂迅, 『大棋局中的國共關係』, 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5
- 郭廷以, 『中華民國史事日誌』第四冊, 臺北: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2015
- 林桶法, 『戰後中國的變局—以國民黨爲中心的探討』, 臺北:商務印書館, 2003
- 王永祥, 『雅爾達密約與中蘇日關係』, 臺北:東大出版社, 2003
- 汪朝光, 『1945—1949: 國共政爭與中國命運』, 香港:香港中和出版有限公司, 2011
- 林桶法 等, 『國共內戰』, 南京:南京大學出版社, 2015
- 楊天石, 『找尋真實的蔣介石』, 重慶:重慶出版社, 2018
- Parks M. Coble, Facing Japan: Chinese Politics and Japanese Imperialism, 1931-1937,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
- Odd Arne Westad, Cold War and Revolution: Soviet-American Rivalry and the Origins of the Chinese Civil War,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Dieter Heinzig, *The Soviet Union and Communist China 1945–1950*,  
N.Y.; Armonk, 2004

Hans van de Ven, *China at War: Triumph and Tragedy in the  
Emergence of the New Chin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7

<Abstract>

## The Struggle between KMT and CCP over the surrender and disarmament of Japanese forces in China in 1945

Jung, Hyung-Ah

The process of disarming the Japanese forces in China after Japan's surrender in 1945 was not merely a military procedure. It was a prelude to the post-war rivalry between KMT and the CCP that would determine China's political order.

Chiang Kai-shek's National Government asserted its legitimacy to lead the surrender and disarmament of the Japanese army as the official allied victor. conversely, the CCP demanded the authority to disarm, claiming to be 'the true core of the resistance' by rapidly expanding its liberated areas. Thus, the Japanese defeat served as a turning point, immediately transforming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of the anti-Japanese war into a de facto civil war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sides.

Particularly, the Soviet Union's entry into the war against Japan, its occupation of Northeast China(Manchuria), and its signing of "The Sino-Soviet Treaty of Friendship and Alliance" with the National Government decisively impacted the KMT-CCP balance of power. Although the Soviet Union officially recognized the National Government, it practically intensified the conflict by transferring remaining Japanese military equipment and facilities in Northeast to the

Communist forces. Consequently, the surrender and disarmament of the Japanese army became more than just a post-war military administration; it served as the genesis of China's political reorganization and the formation of the early Cold war order in East Asia.

This research demonstrates that the origins of the Chinese Civil War were already forming during the surrender process by analyzing the responses and struggles between the two parties over the disarmament of Japanese forces on the Chinese mainland in 1945. Furthermore, its significance lies in revealing the unique continuity in modern Chinese history in which 'the conclusion of Anti-Japanese War' immediately led to 'the beginning of the Civil War.'

Keywords : 1945, the surrender of Japan, disarmament of Japanese forces, KMT, CCP